

광양 불산 제조공장 건립 반발 격화

시의회 등 범시민대책위, 사업 추진 항만공사서 시위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HF·불화수소산) 제조공장 건립 움직임에 대해 광양 지역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다. 불산은 2차 전지와 전자자동차 등 제조과정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공기와 접촉하면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가스로 기화한다.

광양시의회는 21일 광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치를 추진중인 불산 제조공장의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 이정문 의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제조공장의 유치를 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산공장 유치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광양시의회에서 불산 제조공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최근 항만공사에 보냈음에도 외국계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치 철

회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와 광양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등은 지난 16일 ‘광양항 불산공장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21일 항만공사 청사앞 광장에서 불산공장 저지 광양시민 1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범시민 대책위는 항만공사 측이 공장유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제2차 궐기대회를 갖는 등 계속해서 대규모 항의 집회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여수 지방해양수

산청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 역시 광양에 불산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맥시켄이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공장의 최종 건립 여부는 미지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영국계 회사인 맥시켄은 2013~2014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광양항 서측배후부지에 연산 13만5000t 규모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지난 2월 MOU(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 20일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조충훈 순천시장과 선교사 후순, 기관 단체장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개관... 성지순례지 개발

호남지역 기독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순천시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지난 20일 순천시 매곡동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선교사 후순, 교계 인사, 시민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물관은 부지 1447㎡에 연면적 866㎡ 규모로 지하 1층 제 1전시실, 지상 1층 제 2전시실을 비롯해 ‘남녀칠세부동식’이라는 조선시대 시 대상이 반영된 ‘기독교인 미니 채플’, 휴게실, 수장고 등을 갖는다.

제 1전시실은 순천에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알기 쉽게 보여준다.

제 2전시실은 ‘100년 넘게 이어진 한국사’를 주제로 순천선교부가 개설돼 순천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보여준다.

박물관에는 당시 순천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위해 타고 다녔던 차량과 동종 모델인 포드자동차 T모델(1921년식)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들의 고증을 거쳐 수집한 근대 기독교 관련 유물 650점이 전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독교 역사박물관 개관을 기독교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매산등과 연계한 성지순례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에 오토 캠핑장 조성

구례군 산동면 이령리 지리산 호수공원(구만제)에 오토 캠핑장이 들어선다. <조감도>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내년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역은 구례군을 비롯해 부산, 강원도 양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등 6개 소다.

군은 국비와 군비 각 10억원씩 20억원을 투입해 부지 5만㎡에 2014년까지 파고라,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캐빈 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산 계곡 특유의 산악과 수변, 농업자원을 토대로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

화적 휴식·레저 체험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만제 오토캠핑장은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매우 쉽고, 인근에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 증가와 레저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구례군-중 초저우시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

구례군이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중국 교류와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중국 안후이성 초저우(池州)시와 지난 2003년 11월 자매결연을 하고 대표단 교환 방문을 비롯해 차 연수 생 파견, 중학생 청소년 교류, 공무원 교환 근무 등 그동안 25차례의 교류를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양국에 한국과 중국의 전통정자를 각기 건립해 눈길을 끌었다. 창덕궁에 있는 ‘여린정’을 담은 한국정자 ‘구례정’이 초저우시 평천호수내 도화도에, 중국의 전통정자 ‘지주정’이 구례를 공설운동장 옆에 각각 건립됐다.

이러한 활발한 교류 덕분에 김재홍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최근

열린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인민 대외 우호협회(이하 ‘전국우협’)와 중국 국제 우호도시 연합회가 수여하는 영예 증서와 상패를 전달받았다. <사진>

구례군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초저우 제10중학교와 LED 조명기업인 근상 광전과학기술 유한공사를 방문하는 등 교류 범위를 청소년 및 학교,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광양시 내년 예산 5204억 편성 의회 제출

광양시는 2013년 본예산(안) 5204억원을 편성해 21일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843억원 보다 361억원(7.5%)이 증액된 규모이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3964억원 대비 324억원(8.2%) 늘어

난 4288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879억원 대비 37억원(4.2%)이 증가한 9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2291억원, 지방교부세 1352억원, 재정보전금 109억원, 국·도비보조금 1452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 및 지역개

발 21.6% (광양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106억원·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9억원·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68억원 등) ▲사회복지 17.4% (영유아 보육료지원 184억원·기초 노령연금 118억원·영세공인 제2묘역 조성공사 20억원 등)이다.

한편 광양시가 제출한 2013년 본예산(안)은 광양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1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 북

“정읍, 아열대 과수재배 적절”

농기센터 적응시험결과 평가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에서 한라봉·용과 등 아열대 과수재배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가온작물 재배 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적응 시험 결과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한계작물 재배적지 북상과 같은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지역적응을 실시한 한라봉·용과·망고·구아바 등 11종의 아열대 과수에 대한 정읍지역

적응시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응시험 결과 10a(300평) 기준 한라봉은 시설까지 재배와 비교할 경우 29%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고, 21%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센터는 이번 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적응이 가능한 유망 과수인 한라봉과 용과를 내년도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평가회를 계기로 유망 아열대 과수를 조기 확대 보급해 지역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 생태환경 복원 본격화

정부 2040년까지 1조1500억 투입...대자연 체험지 등 조성

새만금 생태환경이 본격적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1조1500억여원을 투입해 생태습지, 야생동물 서식지, 대자연 체험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생태환경습지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조1511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개발면적의

18%에 해당하는 50.2km의 면적에 생태환경 용지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201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는 크게 ▲북부권역 ▲북한도시 북측 권역 ▲북한도시 남측 권역 등 3개의 권역별로 나눠 조성된다.

‘북측권역’은 물길 생태습지·새만금 조망원·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만들어 ‘생태의 장’으로 조성된다.

‘북한도시 북측 권역’은 물환경 연

원권과 새만금 체험원 등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 공생의 장’으로, ‘북한도시 남측 권역’은 국제 생태환경 체험원과 자연 생태습 등을 조성해 ‘대자연 체험·교육의 장’으로 개발된다.

특히 생태환경 용지 대부분을 수로와 습지 중심으로 조성해 수질정화에 생태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규모 철새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세계적 대자연 체험지를 조성하며, 도시 인근에는 도시 숲과 자연 테마공원 등을 만들 계획이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올 건축허가 면적 전년비 2.3배 ↑

전반적인 국내외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군산시 올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면적기준 건축허가는 97만6232㎡로 전년(41만2231㎡)보다 230% 증가했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의 호조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용 건축물은 전년(11만9567㎡) 대비 5.3배 증가한 63만6567㎡로, 전체 허가면적의 65%를 차지했다.

교육·의료·사회용 등 기타 용도 역시 정부정책 복지수요 증가 요인 등으로 291%(15만7673㎡) 증가했다.

이같은 건축허가 증가는 ▲꾸준한 인구증가(지난해말 대비 2624명) ▲1~2인 핵가족 단위의 가구수 증가에 따라 주택연계가 향후 2~3년 이후 지역 주택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해리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준공

천일염 산지 종합 처리장(이하 종합처리장)이 고창군 해리면에 들어섰다.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재찬)은 지난 20일 해리면 금평리에서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된 종합처리장은 건적면적 1524㎡(지상 1층) 규모로 저장동·가공동·사무동으로

구성돼 있고, 천일염을 세척·탈수·건조 후 분쇄·가공·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한편 고창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고 ‘참사르 습지’로 등록된 청정함 고창 갯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천일염과 비교했을 때 미세알 함량이 높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오선위기배 바둑대회

순창지역 바둑애호가들이 최근 열린 ‘제1회 오선위기(五仙圍碁)배 바둑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최강부 양친연씨 ▲일반부 박수복씨 ▲순창 동호인부 김재춘씨 ▲청소년부 우상범 ▲초등부 유단자부 윤예성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순창지역 바둑애호가들이 최근 열린 ‘제1회 오선위기(五仙圍碁)배 바둑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최강부 양친연씨 ▲일반부 박수복씨 ▲순창 동호인부 김재춘씨 ▲청소년부 우상범 ▲초등부 유단자부 윤예성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 신

채만식 문학관 24일 송하춘 작가 초청 강연

군산시 채만식 문학관은 24일 오후 3시 소설가 송하춘(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작가를 초청해 문학 강연회를 연다.

김재 출신인 송하춘 작가는 197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제3회 오영수 문학상(1995년), 제9회 채만식 문

학상(2012년) 등을 수상했다.

송하춘 작가는 ‘소설가의 눈으로 본 채만식 작가’라는 주제로 통해 채만식 문학의 의미와 특징, 일제강점기 시대 지식인의 고뇌와 한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내년 3월까지 세설·설해대책 시행

정읍시가 내년 3월까지 세설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세설과 설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10cm 이상 적설때 시청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세설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휴일과 휴폐근 시간대에 기습폭설이 내리면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를 보내기로 했다. 국도와 지방도 등 61개 노선 375km 구간은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 예찰과 세설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염화칼슘도 전년도보다 1.5배 많이 확보하고 취약지역에 모래주머니 2만 개, 세설함 50개도 설치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특화작목별 전담 지도사 배치

순창군이 지역 특화작목이자 소득작목인 블루베리·오미자·매실·두릅 등 15개 작목별로 전담 지도사를 배치했다.

전담지도사는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비롯해 ▲세부 육성계획 수립 ▲업무관련 부서 협조 ▲재배농가와 연구기관 인적네

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선도농가 53호를 선발해 사업파트너로 활용하고, 실용연구를 겸한 세척·오미자 시범 등 14건의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멸종위기 ‘노랑부리 백로’ 변산반도서 관찰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 백로’가 변산반도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21일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에 따르면 고사포·하심 연안습지의 조류 변화와 탐방객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17종의 조류를 관찰했다.

이 가운데 ‘꼬까도요’, ‘쇠제비 갈매기’, ‘흰물떼새’ 등 5종은 새롭게 관찰된 조류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